

아동빈곤 결정요인 분석: 가족요인과 사회요인

Family Factors and Social Factors of Child Poverty



배화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전통적으로 아동은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관계로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쉽사리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빈곤취약 인구집단이다. 아동빈곤은 아동이 소재한 가족이 빈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아동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은 크게 가족요인과 사회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족요인은 다시 가구주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회요인은 노동시장 변동과 사회보장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도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요인별 및 사회요인별 아동빈곤 특성을 파악한 후 가족요인과 사회요인이 아동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빈곤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가구주의 직종이 있으며,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저학력의 고령인 사별여성,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조손가정이나 모자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목적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아동이 소재한 가구의 빈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근로능력이 없는 관계로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쉽사리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빈곤취약 인구집단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노인, 장애인과 달리 개인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집단적으로 근로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로능력이 형성되

지 못한 인구이기 때문에 아동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동에게 개인적 책임성이나 사회적 책임성을 묻지 못하며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양육·보호·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나 보호자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이차적 책임을 지는 인구집단이다. 즉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아동빈곤 수준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할 때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혹은 부모

나 보호자가 일차적 아동보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그 정도와 특성에 따라 지원적, 보완적,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¹⁾

본 절에서는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요인들을 접목하여 관련요인 특성이 아동빈곤 수준에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요인을 하위범주로 쪼개어 아동빈곤 수준과 교차분석하여 아동빈곤의 내부 특성을 살펴본 다음, 관련요인들이 아동빈곤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아동빈곤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여 아동빈곤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아동빈곤 관련요인

아동빈곤은 노인빈곤이나 장애인빈곤과 달리 아동이 있는 가족이 빈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다. 아동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은 일차적으로 가족요인과 사회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족요인은 다시 가구주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회요인은 노동시장 변동과 사회보장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한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노동시장에서 근로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학력은 가구소득의 근간이 되는 취업여부 및 직업형태와 상관성이 단연히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근로가능성에서 평가절하되는 여성가구주와 고령가구주는 아동빈곤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가구유형과 같은 가족구조 특성도 아동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가구유형은 일차적으로 가구주의 혼인상태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에 의거하여 볼 때 한부모가정은 아동빈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모자가정의 아동빈곤은 여성빈곤 문제와 불가분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지적받는다.³⁾ 또한 가구 내 아동의 수나 보육아동의 수는 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빈곤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⁴⁾

아동빈곤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유무와 고용상태를 꼽을 수 있다. 가구주의 취업유무와 고용상태는 가구소득의 증감과 직결되어 있어 아동빈곤 여부를 뚜렷하게 가리는 지표이다.⁵⁾ 이와 더불어 가구 내 부가적 소득을 증가시키는 취업자 수도 아동가구의 빈곤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그러나 가구주의 취업유무와 고용상태, 그리고 취업자 수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연령과 학력에 의해서도 결정되기도 하지만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⁷⁾ 또 다른 사회요인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들 수 있다. 사적이전, 공적이전, 사회보험의 존재는 소득구조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빈곤 완화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⁸⁾

이상을 종합하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구조 특성을 포함한 가족요인과 가구주의 직업특성과 소득보장 급여유무를 포함한 사회요인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요인집단별로 투입하여 아동빈곤 여부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층적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분석은 아동빈곤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자료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6년도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 자료이며 이는 통계청이 매년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가계조사와 5년 단위로 조사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합한 조사로 농어를 제외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가구유형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빈곤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였다.

아동빈곤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빈곤측정은 정부가 가구인당 책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한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빈곤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최저생계비 120%선을 산정한다. 아동가구가 절대빈곤 이하이면 극빈층, 절대빈곤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이상을 비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아동빈곤계층의 요인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아동빈곤에 대한 요인집단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곤/비빈곤의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아동빈곤가구의 특성

2006년도 전국가계조사의 농어를 제외한 전체 14,014,651 가구 가운데 만18세 미만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7%인 6,404,146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⁹⁾ 이 가운데 극빈층 가구는 8.9%, 차상위층 가구는 3.7%였으며, 나머지 87.4%는 비빈곤층 가구였다.

1)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Michaud, S. M., & Costin, L. B.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 4th Ed. Pearson Education, Inc. 2004.
 2)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6권. pp.167~194.
 황덕순. 2002.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진호 외(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pp.88~124.
 3) 윤홍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pp.5~28.
 4)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권. pp.82~12.

5) 안종범·김철희·전승훈. 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1). pp.75~95.
 6) 황덕순. 2002.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진호 외(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pp.88~124.
 7)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권. pp.82~12.
 8)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제3호, pp.113~149.
 9) 조사가구 90,696가구에 통계청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준 결과임.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여성가구주가 있는 아동가구가 빈곤한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극빈층에 속한 가구비율도 21.0%나 되었다(표 1). 가구주가 장년층인 아동가구가 가장 빈곤하지 않았으며 연령대별 아동 빈곤계층의 구성은 U자형을 구성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과 아동 빈곤계층은 대체로 부적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동수 및 보육아동수와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는 단순한 선형 상관관계가 이루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아동의 수와 보육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빈곤수준이 높아지고 있다(표 2). 아동수 및 보육아동수와 빈곤계층과의 교차분석에서 아동이나 보육아동이 3~4명 있는 가구는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아동이 3명 있는 가구는 차상위층에 속한 비율이 극빈층에 속한 비율만큼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

형과 빈곤계층과의 교차분석 결과 조손가구와 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수준이 단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손가구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아동의 수가 적거나 비슷하더라도 보육비와 교육비 등 아동으로 비롯된 생활비 부담이 일반가구 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조손가구, 모자가구, 일반가구를 포함하여 홀벌이가구로 묶은 후 맞벌이가구와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였을 때 맞벌이가구에 비해 홀벌이가구의 빈곤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조손가구와 모자가구를 포함한 이유도 있으나 홀벌이가구는 맞벌이가구에 비해 빈곤을 결정짓는 소득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홀벌이가구의 경상소득은 275만원으로써 맞벌이가구의 경상소득 389만원의 70.7% 수준이었다. 아동가구내 취업자수와 빈곤계층과는 뚜렷한 선형 상관관계가 나

표 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체
가구주 성	- 남	6.7	2.9	90.3	100.0
	- 여	21.0	7.9	71.1	100.0
가구주 연령대	- 청년(18~34)	8.3	3.5	88.1	100.0
	- 장년(35~49)	7.5	3.4	89.1	100.0
	- 중고령(50~64)	13.3	4.4	82.3	100.0
	- 노령(65+)	42.0	10.6	47.5	100.0
가구주 교육수준	- 초졸	30.8	9.9	59.4	100.0
	- 중졸	18.3	7.0	74.7	100.0
	- 고졸	9.2	4.3	86.5	100.0
	- 전문대졸	5.8	2.6	91.6	100.0
	- 대졸 이상	3.4	1.1	95.6	100.0
전 체		8.9	3.7	87.4	100.0

표 2. 가족구조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체
아동수	1명	9.9	3.6	86.5	100.0
	2명	7.6	3.4	89.0	100.0
	3명	11.8	5.0	83.2	100.0
	4명	17.5	16.9	65.6	100.0
보육아동수	0명	9.1	3.6	87.2	100.0
	1명	8.5	3.3	88.2	100.0
	2명	8.0	4.7	87.3	100.0
	3명	22.1	7.9	70.0	100.0
가구유형	- 조손가구	51.2	11.4	37.4	100.0
	- 모자가구	17.0	7.8	75.2	100.0
	- 일반가구	10.9	4.0	85.0	100.0
전 체		8.9	3.7	87.4	100.0

표 3.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직종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체
가구주 취업형태	- 홀벌이가구	12.1	4.5	83.4	100.0
	- 맞벌이가구	2.0	1.8	96.2	100.0
취업인원수	- 1명	9.2	4.4	86.5	100.0
	- 2명	3.3	2.5	94.2	100.0
	- 3명	1.9	1.9	96.2	100.0
	- 4명	0.0	0.4	99.6	100.0
가구주 직종	- 관리자·전문직	2.0	0.9	97.0	100.0
	- 준전문직	3.3	1.9	94.8	100.0
	- 사무직	2.2	1.1	96.7	100.0
	- 서비스·판매직	9.2	4.8	86.1	100.0
	- 기능직	6.6	4.0	89.4	100.0
	- 단순·노무직	15.5	8.7	75.8	100.0
	- 무직	42.8	6.9	50.3	100.0
전 체		8.9	3.7	87.4	100.0

타고 있다. 가구내 취업자 수가 1명일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극빈층을 포

함하여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주 직종과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의 교

차분석 결과 가구주가 무직일 경우 빈곤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무직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도 높지만 차상위층을 합쳐 빈곤층에 속한 비율은 4가구 가운데 1가구에 달했다.

아동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지출인 보육비·교육비는 아동가구의 소비구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다.¹⁰⁾ 보육비·교육비의 규모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가구의 보육비는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절대규모는 작아지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상위층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반면 아동가구의 교육비는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지출규모와 전체 소비지출에서의 구성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덜 지출하며 전체 소비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 빈곤층 아동가구의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 환경이 열악함을 확연히 보여준다.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요인 가운데 사회보장 정책이 있으며 공적 이전소득은 사회보장 정책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소득의 규모는 빈곤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가구가 빈곤할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비빈곤층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표 5). 극빈층일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의 58.0%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비빈곤층일 경우 그 비율이 19.6%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호급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수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의 고비중이 아동가구의 탈빈곤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극빈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공적 이전소득의

표 4.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보육비·교육비 지출

(단위: 천원)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소비지출	1338	100.0	1407	100.0	2465	100.0
보육비	21	1.6	31	2.2	39	1.6
교육비	176	13.2	193	13.7	398	16.1

10) 보육비는 전국가계조사에서 명시된 보육료 항목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교육비는 납입금, 교재대, 문구류, 보충교육비를 다 포함한 것임.

표 5.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이전소득 구성

(단위: 천원, %)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지출	비율
경상소득	641	100.0	1233	100.0	3439	100.0
- 이전소득	158	24.6	205	16.6	214	6.2
(공적이전)	92	(58.0)	105	(51.1)	42	(19.6)
(사적이전)	66	(41.9)	100	(48.8)	172	(80.4)

비중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빈곤 결정요인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가족요인과 사회요인으로 구분한 후 빈곤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가족요인 가운데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노령층, 가구주의 낮은 교육수준, 무배우자가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즉 저학력의 모자가정이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보육아동이 있으면, 조손가구와 모자가구일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즉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 조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표 6).

사회요인 가운데 아동가구의 소득소비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무직과 모든 직종이 관리자·전문직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았으며 취업인원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비중과 빈곤과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은 앞서 교차분석에서도 밝혔듯이 빈곤할수록 교육비 지출비중이 낮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 이전소득도 빈곤할수록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사회요인의 설명력이 앞서 가족요인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빈곤여부에 좀 더 결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요인과 사회요인을 모두 투입한 전체모형에서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가구주의 직종이 있으며,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저학력의 고령인 사별여성,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조손가정이나 모자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동시에 공적 이전소득이 커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6.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회귀분석

	가족 모형		사회 모형		전체 모형	
	β	Exp(B)	β	Exp(B)	β	Exp(B)
상수	-1.657		-2.463		-2.912	
가구주 특성						
남성(여성 기준)	-0.789	0.454			-1.296	0.274
연령대(노령 기준)						
- 청년(18~34)	-0.826	0.438			-0.496	0.609
- 장년(35~49)	-0.933	0.393			-0.390	0.677
- 중고령(50~64)	-0.913	0.401			-0.456	0.634
교육수준(대졸 이상 기준)						
- 초등학교	1.695	5.446			0.993	2.699
- 중학교	1.529	4.612			1.225	3.405
- 고등학교	0.952	2.591			0.687	1.988
- 전문대	0.419	1.520			0.443	1.557
배우자(무 기준)						
- 동거	-0.228	0.796			0.148	1.160
- 별거	-0.999	0.368			-0.397	0.673
가족구조 특성						
가구원수	0.118	1.126			0.415	1.515
보육아동 유(무 기준)	0.094	1.098			-0.064	0.938
가구유형(일반가구 기준)						
- 조손가구	0.120	1.128			0.821	2.274
- 모자가구	0.228	1.256			0.072	1.075
소득소비구조 특성						
가구주직업(전문직 기준)						
- 무직			2.518	12.406	1.770	5.873
- 단순노무직			2.209	9.109	1.550	4.710
- 기능원·장치직			1.366	3.920	1.054	2.870
- 서비스·판매직			1.752	5.764	1.011	2.748
- 사무직			0.108	1.114	0.019	1.019
- 준전문직			0.587	1.799	0.576	1.778
취업인원수			-0.995	0.370	-0.927	0.396
교육비/소비지출			-0.022	0.979	-0.024	0.976
사회보장 특성						
공적 이전소득/경상소득			0.024	1.024	0.011	1.011
Nagelkerke R2	0.133		0.144		0.192	

주: 모든 회귀계수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5. 정책적 함의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아동빈곤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얻을 수 있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보육아동 유무, 가구 유형, 가구주의 직종, 취업인원수, 교육비 지출, 공적 이전소득은 아동가구의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 빈곤지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보육아동이 있는 모자가정이 차상위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고 동시에 빈곤에 처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관련연구에서 모자가정은 극빈층보다 오히려 차상위층에 머무는 비율과 확률이 큰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¹¹⁾ 회귀분석 결과 여성가구주, 고령, 저학력, 서비스·판매직 종사 등이 아동가구의 빈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모자가정의 경우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선별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모자가정의 단독 취업은 노동시장의 성 편향성으로 인해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떨어져 빈곤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여성경제활동의 질 제고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OECD에서는 아동 빈곤 탈피를 위한 방안으로 모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¹²⁾

둘째, 분석결과 가족요인보다 사회요인이 설명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요인이 가족요인보다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일 것이다.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할 경우 무직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직종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하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업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 시혜에서 배제되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빈곤층을 지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운용 등 정책적 지원이 긴급히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가구가 직접적으로 빈곤에 이르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었으나 보육아동의 존재는 보육비 지출 등 아동가구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보육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적절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빈곤아동의 효과적인 보육서비스가 될 뿐만 아니라 탈빈곤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주목적 을 두고 있으므로 빈곤아동가구에 대한 보육서

11) 김미숙·배화옥. 2007. 한국 아동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7권 1호, pp.3~26.

12) Forster, Michael, and d'Erocole, Marco.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2. DELSA/ELSA/WD/SEM(2005)1.

비스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¹³⁾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인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맞벌이부모에게 아동보육을 위하여 저렴한 보육시설 공급과 보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비 외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은 아동빈곤의 극명한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교육비 지출 규모는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는 점을 보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교육을 통하여 계층의 상승이동이나 하강이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아동이 받아야 마땅한 교육기회의 누실은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

었을 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협력 실행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협력사업 등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은 빈곤세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보다 근본적인 접근 가운데 하나로써 이혼과 사별 등 가족해체로 인하여 형성되는 조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아동빈곤의 주요 구성원인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모자가정과 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빈곤문화의 고착화를 형성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서 이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특히 교육기회와 연계되는 현물성 지원 혹은 서비스 지원 방식을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합**

13) 김미숙, 2005,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14호, pp.78~90.